

영생의 복

The Blessing of Eternal Life

마태복음 25:31-46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1월 17일 설교

³¹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³²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³³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³⁴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³⁵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³⁶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³⁷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³⁸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³⁹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⁴⁰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⁴¹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⁴²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⁴³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 하였느니라” 하니 ⁴⁴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⁴⁵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니 ⁴⁶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최후의 심판

오늘 본문을 보통 “양과 염소의 비유”라 부릅니다만 본문은 비유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하겠다는 말씀도 나오고 또 사람을 양 또는 염소라고 부르시지만 전체 내용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집행하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고 분명하게 일어날 일을 사실 그대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주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미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특히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 열 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등불에다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하셨는데 기름까지 준비하는 게 뭔지, 어떤 혼인잔치인지, 그걸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달란트로 장사를 해 더 남긴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을 나눌 거라 하셨는데 장사를 해 남기는 게 뭔지도 같이 나눌 즐거움이 뭔지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 우리를 불러 주님 마음대로 “너는 영생, 너는 지옥”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죽는 순간에는 정해집니다. 지금의 내 삶이 정합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갈지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갈지 지금 내가 결정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 살거나 아니면 안 믿고 순종도 안 하며 살거나 내 마음입니다. 내 결정이니까 책임도 내가 집니다. 그렇게 내가 결정한 걸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확인해 주시는 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전에 미켈란젤로 그림 <최후의 심판>을 잠깐 소개했지요? 바티칸의 시스티나 경당 정면에 그린 그 그림은 정말 대작입니다. 사이즈가 커서 대작이 아니라 뜻이 정말 깊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자세한 건 나중에 제 책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그림의 백미는 중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의 상처하고 얼굴 잘 생긴 것만 빼면 참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거기 뜻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습니다. 분노의 얼굴도 아니고 자비의 얼굴도 아닙니다. 눈도 아무 것도 안 보는 듯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자세도 어정쩡합니다. 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팔도 하나는 치켜들었고 하나는 조금 내렸습시다. 모든 게 중립이고 모든 게 애매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심판이요 천사들이 집행하지만 결정은 각자가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저 각자가 정한 그대로 집행만 하시면 됩니다.

양을 염소에서 가려내심

자,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을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곧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영광으로” 오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온 우주의 주인의 영광입니다. 당신의 “천사들을 다 거느리고”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보좌는 왕의 자리입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어 오실 것입니다. 천지창조와 함께 시작된 우주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 끝이 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간을 뛰어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셔서 사람을 둘로 나누십니다.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모으실 것입니다. 온 인류가 재판장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니 예외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대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둘로, 그러니까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꼭 둘로 나누실 거라 했습니다. 그냥 반 가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실 건데 우리말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원문은 염소에서 양을 구분해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데 양쪽으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염소는 그냥 있고 그 사이사이에서 양을 골라내실 겁니다. 주님의 관심이 염소가 아닌 양에게 가 있다는 게 벌써 드러납니다.

그렇게 가려내신 양은 주님 오른쪽에 두시고 염소는 왼쪽에 두실 것입니다. 양은 주님이 가려 뽑으신 사람들입니다. 염소는 골라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남은 사람들입니다.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칭찬의 말씀과 함께 영원한 복을 주시고 염소에게는 꾸중의 말씀과 함께 영원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리 오너라”입니다. “이리 오너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이리 가까이 와라, 내 곁으로 오너라,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스러울 때, 예쁠 때 하는 말입니다. 와서 뭘 합니까? “나라를 상속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의 특권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상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 된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게 창세 전의 일이니까 그 때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상속 받아라 하시고는 뜬금없이 이들이 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하십니다. 마치 이런 일을 했으니 복 받을 자격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집에 들였고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아플 때 찾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한테 왔다.” 이 여섯 가지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뭔가 모자랐을 때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과 잠자리는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니 그게 없다면 얼른 채워주어야지요. 병에 걸리거나 감옥에 갇히는 건 격리되는 것이요 외로움에 빠지는 것이니 가서 보고 챙겨주는 게 옳습니다. 사람으로 살자면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걸 못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주님은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의 내용만큼 중요한 게 의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오른쪽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를 뵈는 적조차 없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지요? 그러니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본문에 “어느 때에” 라는 구절이 세 번 거꾸 나오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지요. 주님 얼굴도 모르는데 언제 도와 드렸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따진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을 자격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설명하시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하고 잠잠했습니까? “전에 누가 형편이 어려워 좀 도와주었더니 주님이 그걸 노트에 적어놓으셨구나,”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이들은 그런 일을 한 것도 기억 못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남에게 베푼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하십니다. 우리말은 미래형으로 “복 받을 자들이여” 했는데 복은 오래 전에 받았습시다. 그래서 그 복의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받은 복이 너무 커 내가 뭘 해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저주 받은 사람들

주님이 이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십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들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주님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쪽이 왼쪽이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반대가 됩니다. 오른쪽 왼쪽은 상대적인 거니까 어디가 어딘지는 너무 신경 쓰

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람에게 하신 첫 말씀이 됩니까? 우리말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했는데 원문은 “저리 가거라”입니다. “나한테서 떨어져라” “썩 물러가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에게는 “이리 온” 하시더니 왼쪽 염소들에게는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은 “너희를 위해 예비된 불”이라 안 하시고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이라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만 저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저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 마귀의 쫓개가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셨는데 저주를 자초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주를 자초했습니까? 보니까 안 했습니다. 뭘 안 했습니까? 복 받은 사람들, 의인들이 한 걸 이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십니다.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요것도 안 했다. 이 사람들도 주님에게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말투를 보니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했다 하시니 말이 안 된다 싶었겠지요. 그래서 따졌더니 주님이 똑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쓴 낱말 가운데 “공양”이라는 게 있지요. “저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한 행동을 주님이 여섯 가지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나로 종합해 “공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가 디아코니아, 곧 섬긴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노숙을 할 때는 집에 들였고 하면서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주님 그걸 간단히 디아코니아라 부릅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분위기입니다. 주님이 이 멋진 표현을 앞에서는 왜 안 쓰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게 하셨겠습니까? 쉽게 말해 “말은 잘 한다” 하고 꾸중하시는 겁니다. 알기는 더 잘 알고 있으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줄도 알았으면서 왜 안 했느냐 하는 꾸지람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 부릅니까? “주여!” 부르는 주여 하고 부릅니다. “주여, 저희가 언제 안 했나이까?” 부르는 주님 하고 부르지만 믿고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는 말도 헛말이지요.

두 무리의 다른 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무리를 나누시고는 한 무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편애하십니다. 다른 무리는 아예 썩 무시하십니다. 처음 염소들에게서 양을 골라낸다 하실 때부터 그랬지요. 그렇게 골라내신 사람들에게 이름도 주십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을 두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이름도 안 주십니다. 양들을 “의인”이라 부르실 때 염소는 뭐라 부르셨는가 보니 “저희”라 하셨습니다. 그냥 인칭대명사입니다. “애들” 아니면 “개들” 그렇게 부르시고 이름은 끝까지 안 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시하신 겁니다. 대우받을 자격이 없으니 그렇게 푸대접을 하셨습니다. 자격이 왜 없습니까? 저도 남을 그렇게 대했거든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되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황금률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의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다” 하고 말씀하시더니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이 세 낱말을 빼셨습니다. 그 구절 앞에 있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구절도 똑같습니다. “내 형제 중에”라는 구절만 썩 빼셨습니다.

“내 형제”니까 누구 형제입니까? 우리 주님의 형제지요. 누구 말씀입니까? 오른쪽 의인들이 착한 일을 누구에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친동생들을 따로 데리고 오신 건 아니겠지요? 사람은 지금 두 가지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의인 아니면 왼쪽에 있는 나머지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의인 자신입니다. 의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려울 때 보살펴 준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가 바로 의인 자신입니다. 서로서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네가 날 도와주고 내가 어려우면 내가 널 도와줍니다. 그래서 형제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도와 형제가 되면 그 사람은 또 우리 주님의 형제가 됩니다. 형제는 둘이 같이 됩니다. 형 없는 아우가 있을 수 없고 아우 없는 형도 불가능합니다. 같이, 동시에 되는 게 형제사이입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 우리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왼쪽의 나머지한테는 왜 “내 형제 중에”라는 말을 안 쓰셨습니까? 형제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형제도 아니지만 서로서로도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는 서로 돕는 사이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게 형제입니다. 한 식구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굶어죽어도 못 본 척, 아파 누워 있어도 모른 척, 그러니 형제일 수가 없습니다. 남남도 아니고 사실 사람도 아니지요. 함께일 때 사람인데 이들은 그냥 혼자였습니다. 서로 형제가 안 되면 주님의 형제도 못 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둘로 나누어졌는데 지금까지 뭘 하고 안 한 것도 차이가 크지만 더 중요한 차이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양들은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데 염소들은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둘 다 영원합니다. 영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늘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 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모든 게 끝입니다. 끝인 동시에 시작입니다. 수십 년으로 제 한되어 있던 짧은 생애가 끝나고 이제 끝도 없는 영원의 상태가 시작됩니다.

열 처녀 모두 결혼잔치에 참석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등불을 준비할 때 기름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오직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만 있었습니다. 일단 잠이 들고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등불이 꺼져 가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등불이 죽으면 신랑을 기다리나마나 할 것이고 등불을 살리려면 기름을 사야 되니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신랑 영접은 못 하고 결혼 행렬에도 못 끼고 결국 결혼잔치에도 못 들어갑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죽음의 잠에 빠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주인이 큰 돈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을 때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주인이 오랜 뒤에 돌아왔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마음을 고쳐먹었다더라면 달란트를 파내 늦게나마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온 순간 모든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얼마나 더 살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둘러야 됩니다. 내일이 있다고 아무도 보장 못 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이 맡기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내 책임이 있고 직장에서도 맡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부지런히 장사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여섯 가지 착한 일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주님의 동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형제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은혜를 안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시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창세 전에 당신의 나라를 우리 것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엉뚱하게 우리가 한 착한 일을 강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온 우리 삶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였고 입지 못하는 사람은 입혔고 집 없는 사람에게는 쉼 곳을 주었다 하십니다. 우리가 다 몸을 가졌기 때문에 병들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습니다. 몸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도 상합니다. 그런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일로도 감옥에 갑니다만 어떤 이유든 죄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을 찾아보는 일은 죄와 싸워 이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볼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나도 물론 바쁘고 힘도 모자라지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만큼 열심히 장사를 해 적어도 맡겨주신 만큼은 남겼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여섯 가지를 찬찬히 뜯어보니 이거 사실 우리가 서로 주고받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마른 우리 영혼을 성령의 샘으로 축여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방탕과 탐욕으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을 때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시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러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아프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걸 깨닫는 순간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가야 되었을 우리를 당신의 진리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한테도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그런 주님을 따라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도 사랑이 뭔지 어렵듯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을 받은 순간 웬지 나도 사랑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사람 입지 못하는 사람 쉼 집이 없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몸 먹고살기도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조금의 성의라도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주신 데 비하니 돕는다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이름을 써 붙이기는 커녕 쥐구멍에 숨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삽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니 내가 깊은 잠에 빠지는 날까지, 열심히 삽니다. 주님이 하신 것 따라하면서,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 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칭찬해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잘 했다” 하고 내가 한 일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은 없고 내가 한 일을 그냥 조목조목 언급만 하셨습니다. 그것도 칭찬이라면 칭찬이겠지만 잘 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거 했다고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착한 일 조금 했다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한 걸 보니, 그러고도 한 줄도 모르는 걸 보니, 은혜를 받았구나, 제대로 믿었구나, 그걸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능력이 되어 삶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하는 삶이 바로 맡은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 남기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래도 실천하는 일입니다. 내 삶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일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입니다. 그게 공로가 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난 게 내 믿음이요, 그 믿음은 곧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 예수를 분명히 믿습니까? 그게 내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이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리 준비한 처녀들만 결혼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장사해 남긴 종들만이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증거를 삶에서 나타내는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권수경 목사)